

2010 세계여성건축가 서울대회의 의미

Meaning of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Union of Women Architects
2010 Seoul

1002

사단법인 한국여성건축가협회는 올해 '2010 세계여성건축가 서울대회(2010 UIFA SEOUL)' 를 10월에 개최하게 되었다. 지난 2008년에 부산의 아카시아대회에 이어 건축계에서는 국제대회가 두 번째, 세계대회는 첫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UIFA(Union Internationale des Femmes Architectes)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고 대회는 1963년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에서는 1983년 6차 프랑스 파리 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워싱턴, 덴마크 코펜하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 헝가리 부다페스트, 일본 동경, 오스트리아 비엔나, 프랑스 툴루즈를 거쳐 2007년 15차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대회까지 참가하였다.

그동안 대회에 참석하여 주제 발표, 전시회 출품, Tour 등의 Program에 참여하였고 2007년 15차 루마니아 대회에 배시화 전임회장이 참석하여 대회를 유치하였다. 대회 참가 전에 서울유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지만 행사 개최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았다.

이미 창립 28년, 그리고 1997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된 법인단체로 인가를 받은 우리 협회는 매년 봄가을에 보육, 노인복지, 주거를 주제로 국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년 2회 국내의 새로운 건축물, 신도시, 공동주택의 견학, 년 1회 해외건축물 견학 등의 Program을 가져왔다.

UIFA에 참가하거나 국제 세미나 개최때 만나본 해외여성건축가들은 놀랍게도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가까운 일본 여성건축가 조차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여 놀랐었다. 배용준, 이병헌은 알면서도.

이번 대회의 주제는 최근에 우리의 입에서, 매스컴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Green Environment」라는 대주제로서, 또 3가지 소주제 - 1. 전통에서의 그린 2. 친환경 주거 3. 여성친화 도시와 도시재생 - 를 가지고 3가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하나는 우리의 전통건축물 소개를 통하여 중국의 거대하면서도 꼼꼼이 Detail한 전통건축물과 일본의 극단적으로 형식적이고 지극히 단순한 전통건축물 사이에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적절한 Scale의 우리의 전통건축물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주거형식 - '아파트' 를,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국토를 뒤덮고 있는 이 아파트를 여과 없이 보여줄 것이고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정적인 편견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경제 분야에서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도달한 효율적인 결과물 - 초고층 아파트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 아마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면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이 아파트가 눈에 어른거릴지도 모른다. "대단하다. 너무하다. 꼼직하다" 고 말한다면 성공한 것이다. '아파트' 하면 Korea가 생각날 정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IT강국으로서의 Korea를 심어주고 싶다. 그것은 이 행사 준비과정과 진행과정에서 표현 될 것이다.

계획대로, 기대대로, 목적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여성건축인들의 - 건축사, 교수, 건설, 인테리어, 공무원 - 통합단체인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대한민국의 건축계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건축계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아낌없는 배려와 전폭적인 지지를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기대해 본다.

이 행사가 여성건축인들만의 행사가 아닌, 건축인들의 축제가 될 것이고 서울의 홍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건축계를 홍보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축계의 후원을 기대하고 또한 확신한다. ■



오경은 / Oh, Kyung-eun, KIRA
(주)피아 종합건축사사무소

약력

- 대한여성건축사회 회장
-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
- 여성공학기술인협회 부회장
- 현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